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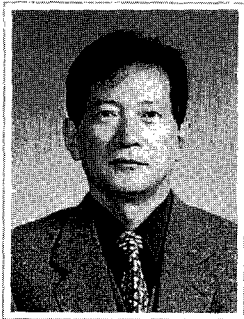


RCA 사업 현황 및 방향

- RCA 지역사무국 설치로 한국의 원자력 위상 제고 -

정 준 극

RCA 지역사무국 사업담당관



RCA란 무엇인가?

RCA라고 하니깐 'RCA는 레코드 회사인데... 원자력과 RCA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 지금도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RCA Victor 레코드'를 생각해 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원자력에서의 RCA는 'Radio-Victor Corporation of America'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RC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원자력 협력 협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협정에 의하여 지역 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원자력 기술 협력을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협정의 실제 명칭은 상당히 길다. 「원자력 과학 기술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구, 개발, 훈련에 관한 지역 협력 협정」이다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 Asia and the Pacific). 이 긴 명칭을 줄여서 RCA라고 부른다.

RCA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는 IAEA 회원국에 한한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IAEA 회원국이 아닌 북한·대만·피지(Fiji), 파푸아뉴기니(PNG) 등은 RCA 회원국이 될 수 없다.

RCA라고 통칭하는 아·태 지역 원자력 협력 체제는 IAEA가 주축이 되어 출범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인 1972년에 발족하였다.

IAEA가 중심 축이 되어 설립된 지역 협력 협정으로는 4개가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RCA,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AFRA, 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ARCAL, 그리고 2002년 9월에 발족한 중동 아랍 국가들의 원자력협력협정인 ARASIA가 있다.

이들 4개의 지역 협력 협정 중에서 RCA가 30년 이상의 연혁을 기록하였으므로 가장 큰 형님이 되는 셈이다.

기본 정신은 TCDC

IAEA가 왜 이러한 지역 협력 제



도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였던 것일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RCA의 기본 개념은 기술 협력 사업을 회원국들이 주도토록 함으로써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증진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개도국간의 기술 협력(TCDC)을 권장하기 위해서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제한된 IAEA 기술 협력 재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RCA를 권장했다고 할 수 있다.

TCDC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는 원자력 기술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부 사정은 과부가 잘 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같은 지역 내의 개발도상국들이 서로 터놓고 기술 협력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나온 아이디어이다. 그런 의미에서 RCA는 TCDC를 본 궤도에 오르게 한 모델이었다.

한편 IAEA로서는 기술협력자금(TCF)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형편이므로 지역 내 회원국들로부터의 기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 제약을 완화하는 의도를 갖게 되었고, RCA처럼 회원국의 재정 기여가 큰 역할을 하는 지역 협력 체제의 출범은 일석이조의 전형이었다.

결국 RCA는 시대의 변화에 성숙하게 대처한 원자력 협력의 성공작

이라고 할 수 있다.

RCA의 성장 과정

1960년대 중반부터 지역 내 IAEA 회원국들은 IAEA와 회원국간의 양자 협력도 필요하지만 여러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질적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서로의 경험과 기술을 교류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원자력 평화 이용을 보다 증진할 수 있다는 의도에서였다.

인도-필리핀-IAEA가 공동 협력 시스템으로서 IPA(India-Philippine-Agency)를 구축한 것은 RCA의 전초였다. IPA는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협력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던 중, 당시 IAEA의 연구 및 동위원소 담당 사무차장이던 일본 출신 H. Kakihana 교수는 지역 내 더 많은 회원국들을 참여토록 하며 협력 사업의 범위도 넓힘으로써 명실공히 대규모 원자력 지역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경제 대국인 일본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함께 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1972년 인도·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의 4개국이 IAEA가 마련한 RCA 협정에 서명하고 RCA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RCA가 정식 발족되었다.

그 이듬해에는 필리핀이, 1974년

에는 방글라데시·한국·파키스탄·싱가폴이 가입하였다. 그리하여 이제는 지역 내 17개 IAEA 회원국이 참여하는 지역 인프라로 성장하였다.

RCA 자체는 협정이다. 국제 조약과 같은 성격의 협정이다. 그러므로 국제 기구는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국제 기구와는 달리 사무국이 없다. 다만 협정에 정하여 놓은 바에 따라 IAEA가 사무국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다.

RCA는 처음 IAEA의 RI(연구 및 동위원소부)가 주축이 되어 발족되고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IAEA의 전반적인 기술 협력 사업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1980년부터는 TC(기술협력부)가 RCA 업무를 맡게 되었다.

IAEA는 RCA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기구의 조직 내에 RCA 조정관(Coordinator)을 두어 업무를 관장토록 해오고 있다. RCA Coordinator는 현재 기술협력부 산하, 아프리카·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국 산하의 동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과에 속하여 있다.

한편 RCA는 다른 지역 협력 협정에 앞서서 회원국을 대표하는 지역사무국(Regional Office)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17개 국가 참여

2003년 5월 현재 지역 내 17개 IAEA 회원국이 RCA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있다. 일본은 RCA의 설립을 처음부터 주도하였지만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정식 가입한 것은 1982년이었다.

17개 회원국 중 아시아 지역 국가는 15개이며 태평양 지역 국가는 2개이다. 17개 회원국은 호주·방글라데시·중국·인도·인도네시아·일본·한국·말레이시아·몽골·미얀마·뉴질랜드·싱가폴·스리랑카·파키스탄·필리핀·태국·베트남이다. IAEA 회원국으로서 아직 RCA에 가입하지 않은 지역 내 국가는 캄보디아와 마셜군도 뿐이다.

RCA 회원국들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잠시 관찰해 보는 것은 앞으로 개도국에 대한 우리 나라의 원자력 기술 협력 사업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이다.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국가가 공존하여 있다. 통치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 양이 통치하는 입헌 군주 국가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영연방 총독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도 있다. 또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가 있는가 하면 수상 중

심의 국가도 있다. 경제적으로는 선진국·개발 도상국·저개발국·최빈국(LDC)이 공존하여 있다.

언어에 있어서는 RCA 지역만큼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곳도 없다. 세계 최대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중국어, 그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힌두어가 이 지역에 있다. 종교에 있어서는 더욱 다양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힌두교·이슬람교·불교 등 세계 4대 종교가 공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도(神道)·도교, 그리고 유교적 전통까지 존재하고 있다. 인구면에 있어서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RCA 지역은 세계 최대의 인구 국가들이 결집되어 있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을 비롯해서 인도·인도네시아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문화·언어·종교·관습이 다른 국가들의 모인 용광로와 같은 지역이므로 기술 협력에 있어서도 각국의 상황을 고려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RCA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

IAEA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RCA는 기본적으로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잘 아는대로 원자력 사업은 크게 에너지원으로서의 이용, 그리고 방사선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으로 나눌 수 있다. RCA는 원자력 발전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전체 17개 회원국 중에서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일본·중국·인도·파키스탄의 5개국뿐이다. 그러므로 RCA로서 원자력 발전 사업은 지역 공통 사업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원자력 발전에 관한 기술 협력은 상당 부분 상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므로 IAEA의 입장에서는 권장할만한 성격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RCA는 방사선과 동위원소의 이용 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RCA 사업은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원자력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원자력 기술의 잠재력은 무한하다. 식량·보건·환경·산업·에너지 등의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이용될 수 있다. 원자력 기술의 이용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원자력 기술이 다른 재래적인 기술에 비하여 확실히 우수하고 경제적이며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자력 기술을 개발 도상국들의 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CA



의 기본 생각이다. 여기에 환경과 자원의 보호는 필수적이다.

국인·환경·경제를 위한 프로젝트

RCA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원자력 기술의 이용 사업을 몇 가지 중점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주제 사업(Thematic Project)이다.

농업과 식량에의 이용, 보건에의 이용, 산업에의 이용, 환경에의 이용, 그리고 연구용 원자로의 운전과 이용 증진, 국가 전력 계획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發電)의 역할 검토, 방사선 방호, 원자력 기술 정보 교류 활동의 강화 등이다. 이같은 8개 주제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2003~2004년도에는 27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1. 농업적 이용

- ① 훼손된 토양의 회복 방안 강구를 통한 농작물 생산성 유지
- ② 구제역(口蹄疫) 감염 여부 측정을 위한 항원 및 항체의 경제적인 생산 기술 개발
- ③ 주식(主食) 곡물, 식용유 생산 작물, 콩 등 두과(豆科) 작물의 신제품 개발
- ④ 가축 사료 개선 기술 개발 및 가축의 인공 수정 기술 개발
- ⑤ 방사선 조사(照射)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수출입 요건 연구

2. 보건

- ① 의료 물리(Medical Physics) 서비스의 품질 보증, 기술 기준 개발, 장비의 운영 능력 제고
- ② 자궁경부암의 저선량(低線量) 및 고선량(高線量) 치료 기준 개발
- ③ 방사선 종양학(腫瘍學, Oncology) 요원 교육 훈련
- ④ 핵 의학 테크니션 교육 훈련
- ⑤ 방사선 치료를 통한 간암 환자의 사망률 감소 기술 및 치료 기준 개발
- ⑥ 비밀봉(非密封) 선원(線源) 이용한 관절염의 전이 방지 및 통증 개선
- ⑦ 방사면역(RIA)을 이용한 골다공증 조기 진단 및 최적 치료 기술 개발

3. 환경

- ① 도시화에 따른 대기 오염 관리(대기중 부유 입자에 대한 데이터 취합, 분석 기술 개발)
- ② 인구 밀집 지역 및 산업 지역의 지하수 오염 조사 분석 기술 개발
- ③ 해안 환경 오염 조사 분석 기술 개발
- ④ 지열(地熱) 지역에서의 환경 및 수자원 조사 분석 기술 개발
- ⑤ 댐 안전성 확보 및 댐 유지 관리를 위한 방사성 추적자(追跡子) 이용 기술 개발
- ⑥ 환경 비상 대응 방안 수립 및

평가

4. 산업

- ① 석유 화학 산업 시설의 안정성 진단 기술 개발 및 공정 최적화 방안 강구
- ② 핵계측(核計測) 장비를 이용한 산업 공정 개선 기술 개발
- ③ 비파괴 검사 기술 개발
- ④ 방사선 가공 천연 폴리머의 이용 기술 개발

5. 에너지

경쟁적 전력 시장에 있어서 원자력 발전의 역할과 기타 에너지 선택에 따른 평가

6. 연구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운전 및 이용 개선

7. 방사선 방호

산업 활동, 의료 분야 등에서의 방사선 방호 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 지원

8. ENO(Electronic Networking and Outreach)

지역 내 원자력 정보 교류의 활성화 추진 및 IT를 통한 원자력 요원 양성 훈련 방안 강구

RCA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식품 조사

(食品照査) 기술이 상용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지역 내 대부분 국가에서 상용 방사선 식품 조사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RCA 사업의 결실이다.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RCA 대다수 회원국에서 조직은행(Tissue Bank)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뼈와 장기(臟器)의 효과적인 이식을 위해 방사선 멸균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하여 2백여명의 각국 조직 은행 담당자가 훈련을 받았으며 방사선 처리에 의한 조직 중합품이 22만개나 생산되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부인암·간암·유방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방사선 이용 기술이 크게 개선되었다.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대기 오염·수질 오염·해안(海岸) 환경 오염 등에 대한 방사 분석 기술이 크게 제고되어 환경 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비파괴 검사 기술의 산업화를 들 수 있다. 회원국의 비파괴 검사 요원들이 상당수 양성되었으며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 등 새로운 기술도 개발되었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RCA 사업을 통하여 지역 내 여러 국가의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였다.

연구용 원자로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농작물 품종 개량은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프로젝트들 중의 하나이다(중국에서의 벼 품종 개량 사업).

지역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를 보다 잘 운영하고 응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었다.

방사선 방호 분야에 있어서는 방사선 취급에 따른 국가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력 양성·정보 교류 등 많은 기여를 했다.

RCA는 3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RCA가 지금까지 주력 해온 사업은 각 회원국의 원자력 이용 능력 배양이었다. 그러자면 우선 요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된 지역 훈련 과정 등은 1천 3백여회에 이른다. 이를 통하여 양성된 원자력 인력만 해도 약 4만명에 달한다. 실로 막대한 인력을 교육 훈련한 것이다.

RCA는 전문가 지원 사업도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해결과 장래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을 위해 수백명의 전문가들이 RCA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였다. 그보다도 RCA를 통한 정보 유통은 그 규

모를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RCA 프로젝트를 위한 1년 예산은?

2003년 한해를 보면 RCA의 각종 사업(Events) 추진을 위한 예산은 약 3백만불(약 35억원) 정도이다. 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지역에서 열리는 지역 훈련 과정·워크숍·전문가 활동 등에 사용된다.

하나의 과정을 개최하는 데에는 평균 약 5만불이 든다. 1년에 약 60개의 행사가 열린다고 하면 3백만불의 예산이 드는 셈이다.

예산의 80% 이상은 IAEA가 지원한다. IAEA의 1년 기술 협력 재원은 모두 약 1천 2백만불이다. 그중에서 RCA를 통한 아·태 지역 기술 협력 사업으로 약 3백만불을 배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20% 정도는 회원국의 자발적 특별 재정 기여에 의한다. 이를 EB (Extra-budgetary) 기여라고 한다.



RCA 회원국 중에서 사업 재원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호주이다. 일본은 보건 분야 사업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호주는 방사선 방호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가 기여하는 특별 재정의 규모는 연간 약 1백만불에 달할 때도 있다. 다른 나라들도 십시일반으로 약간의 기여를 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UNDP도 상당한 재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환경 분야 프로젝트에 지원하였다. 하지만 2000년부터는 사상상 재정 지원을 하지 못하겠다고 나섰다. UNDP도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으며 더구나 다른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원자력 분야에는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UNDP와 같은 국제 기구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은 예상했지만 막상 지원이 중단되고 보니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만 했다. 우선 대외적으로 RCA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RCA가 어떻게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하였는지, 또한 RCA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RCA도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같은 여망에 부응하여 RCA 지역사무국이

출범하였다.

RCA 사업의 오너십 증대를 위한 노력

RCA 사업의 주인은 회원국이다. 그러므로 회원국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다. 과거에는 IAEA 주도로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시대의 변천과 함께 회원국에 의한 RCA 사업의 추진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말하자면 주인 의식(이를 Ownership이라고 부름)이 높아진 것이다.

오너십 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하나하나 실시되고 있다. RCA 사업의 '업스트림(Upstream)' 작업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좋은 예이다. '업스트림'이란 것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을 도출하여 반영한다는 개념이다.

오너십을 증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은 '사업 주도 국가(Lead Country)'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각 분야마다 그 분야의 사업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여 책임을 맡긴 것이다.

1999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아이디어에 의하여 현재 각 분야별 사업 주도 국가는 농업-중국, 보

건-일본, 환경-뉴질랜드, 산업-인도, 에너지/연구용 원자로-한국, 방사선 방호-호주, ENO-말레이시아이다.

RRU(Regional Resources Unit)라는 제도도 도입하였다. 지역 내 우수 연구 시설 등을 지역 공동 활용을 위해 제공토록 하는 아이디어이다.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RCA 훈련 과정 등을 회원국이 주도적으로 집행하는 아웃소싱 제도도 스타트 직전에 있다.

그러나 오너십 증대를 위한 가장 획기적인 진전은 무어라해도 RCA 지역 사무국(RCA Regional Office)을 우리 나라에 설치한 것이다.

RCA 지역사무국의 한국 유치

RCA가 IAEA에 의하여 처음 설립되었지만 IAEA는 RCA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다. 17개 회원국들이 RCA 협정의 당사국이다. IAEA는 RCA 사업을 위한 행정 지원에 대한 책임만을 맡도록 되어 있다.

RCA 회원국들을 대표하는 어떤 형태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RCA가 발족되고 나서 6년 후인 1978년, RCA 대표자 회의에서 지역에 RCA 사무소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 하고 미

루어졌다. 당시로서는 RCA 지역사 무소를 둘 만큼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미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다가 1997년, RCA 창립 25 주년을 기하여서 RCA 사업의 Ownership 증대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지역에 회원국을 대표하는 사무소를 두어 앞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할지도 모르는 RCA를 위해 역할을 다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운영비는 어떻게 하며 사무소장의 역할과 RCA Coordinator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고 또한 사무소의 법적 위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여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는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원자력 위상을 새롭게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표준형 원자력 발전소를 자체 개발함으로써 바야흐로 원자력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하나로」와 같은 최신행 연구용 원자로를 자력 건설하였고 또한 방사선과 동위원소의 의학적·산업적·환경적 이용 등에서 훌륭한 성과를 계속 생산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아시아 개도국들과의 원자력 기술 협력을 활성화 할 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RCA는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나라는 지난 기간 동안

RCA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방사선 분야가 원자력 발전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못해 왔던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원자력 분야의 기술 협력, 다시 말하여 기술 진출은 국내 원자력계의 모토가 되었다. 방사선 이용 분야의 기술 협력은 원자력 발전 분야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원자력 기술 진출의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와 RCA와의 친목은 점차 돈독해졌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 정부(과학기술부)의 아시아 개도국과의 기술 협력 증진 정책이 촉매제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RCA 지역사무국의 출범

2000년 3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RCA 국가 대표자 회의에서 한국은 RCA 지역사무국의 한국 유치를 정식으로 제안하였다. 회원국들은 이 제안을 환영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02년 3월, 대전에서 RCA 지역사무국이 공식적으로 역사적인 출범을 하였다.

이같은 결실은 우리 나라 원자력 외교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RCA 전체 회원국의 대표, IAEA 대표, 주관국인 한국 정부 대표가 참석하여 지역사무국 오프닝을 축

하하고 격려하였다.

RCA 지역사무국이 법적 위상을 가지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2년간의 잠정 운영 기간을 가지도록 했다. 그 기간 동안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무리하여 사무국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었다.

지역사무국의 본연의 업무는 RCA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과 RCA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원자력 지식의 보존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는 것이다.

지역사무국은 RCA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 기구, 외교 공관, 정부 기관, 한 RCA 설명회를 확대하고 있다.

새로운 파트너 모색을 위해서는 UNESCAP·UNDP·FAO·WHO 등 국제 기구, 그리고 FNCA 등 지역 원자력 협력체와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원자력 지식 보존 사업은 지역사무국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사업의 착수

지역사무국은 발족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로서 「RCA 박사후 연구 과정」을 추진하였다. RCA 회원국의 젊은 박사들이 안전성, 방사선



이용, 방사선 안전 규제 등 우리 나라 주요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원국들의 신에 원자력 박사 과학자들이 우리 나라의 선진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며 우리 나라 연구팀으로서도 이들 유능한 과학자들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서로 유익한 사업이다.

2002년도 프로그램에 의해서는 전체 26명이 신청하였고 그 중 19명이 수락되어 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의학원 등에서 박사 후 과정 연수를 받았다. 2003년도 프로그램에는 8명이 새로 선정되었다. 원자력의학원에 6명, 한국원자력연구소에 2명이 선정되었다.

지역사무국은 KAIST와 공동으로 「RCA 원자력석사 과정」을 마련하였다. 2003년 봄 학기에는 여러 사정상 적은 수가 수락되었으나 2003년도 가을 학기에는 RCA 회원국 중견 요원 5~6명이 선발되어 참석한다. 이 과정이야말로 지역적으로 필요한 원자력 지식 보존 사업의 전형이다.

지역사무국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RCA 핵의학 인턴십 연수 과정」을 2003년 10월부터 추진한다. 원자력의학원(KIRAMS)이 주관할 이 연수 과정에는 RCA 회원국 핵의학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하여 PET 등 한국의 새로운 핵의학 기술을 연수하게 된다. 지역사무국은 이같은 새로운 사업을 통하여 RCA의 목적을 일반에게 새롭게 인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CA의 비전

RCA는 할 일이 많다. 지역이 현재 안고 있거나 앞으로 당면할 문제들을 원자력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앞으로 아시아 각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원자력은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수많은 기여를 했고 또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인구 증가율이 높다. 계속 늘어나는 수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자면 식량이 더 있어야 한다. 원자력은 새로운 농작물 품종 개량, 식품의 부패 방지와 장기 저장 등에서 두드러진 기여를 했고 또 현재에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산업 활동과 인구 증가로 인한 환경 피해는 아시아 지역이 안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 원자력 기술을 이용하면 환경 보호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

원자력의 의료적 이용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건강을 지키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다. 원자력이 그 소망을 이루도록 기여했고 지금도 기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기여할 수 있다.

원자력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화석 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에너지원은 원자력 발전뿐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 많은 나라들이 가까운 장래에 원자력 발전으로 공장의 모터를 돌리고 어두운 거리를 밝히며 편리한 가정 생활을 하도록 해 줄 것이라고 전망된다.

RCA에는 비전이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을 한데 묶어 원자력 기술 협력을 증진하는 장치로서는 RCA가 유일하다. 오랜 경험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RCA 사업을 통하여 수많은 인력을 훈련하고 양성했다. 능력 배양은 그만큼 했으면 되었다. 계속 필요로 하는 인력은 각국이 자체적으로 양성 훈련하면 된다.

이제부터는 문제 해결의 촉매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을 위해 해결하고 도전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그러므로 RCA의 전망은 밝다. 이 밝은 전망을 위해 RCA 지역 사무국이 전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